◀기쁜 우리 날들▶ **어머님의 일기.**

미안하구나, 아들아.
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
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네게 짐이 되는구나
여기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

그렇게 일찍 네 애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
땅 한평 남겨 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
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
짐같은 가난만 물려 주었구나.

내 한입 덜어 네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
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
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다.
내 평생 네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
말라 비틀어진 젖꼭지 파고 들던 손주 녀석 보고픈 것쯤이야
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.

혹여 에미 혼자 버려 두었다고 마음 다치지 마라.
네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에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.
삼시 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에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
네몸 건사 잘 하거라.

살아 생전에 네가 가난 떨치고 살아 보는 것 한번만 볼 수 있다면
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.
행복하거라, 아들아.
네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
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다.

◀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의 진짜의미▶

『늦었구나』 : "이제 좀 쉬거라"
『조심해야지』: "얘야, 넌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란다"
『급하게 운전하지 말아라』: "우린 너 없이 못살아"
『숙제해라』 : "힘닿은 데까지 뭐든 배워야해"
『다 써버리진 말거라』: "항상 비상시를 대비해 아껴두어야 한다"
『참 잘했다』 : "우린 네가 무척 자랑스럽다"
『강아지 밥줘라』: "생명를 가진 모든 것들을 네 몸처럼 돌봐야 한다"
『네 방좀 치워』: "생활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"
『나올때는 잔등불 꺼야지』: "네가 한 일은 책임을 져야한다"
『키가 쑥쑥 크는구나』: "집을 떠날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"

하지만 전혀 혼동되지 않는 말도 있다

『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: "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"

교 회 목 표	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	교회생활지침
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	**갈 보 리 교 회** (마7:8) *Calvary* Presbyterian Church	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제8권 19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6년 5월 14일
☎ 369- 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		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**알고나 있을까?**

교회 간판을 넘어뜨리고
들판 비닐하우스를 찢어 버린
비바람이 지나간 아침
참나무 가지에 어린 새 한 마리
밝은 햇살을 노래하고 있다.

하늘을 할퀴던 번갯불
어둠을 울리던 천둥소리에
저 새는 얼마나 놀랐을까?

나무를 뽑을 기세로 대지를 휩쓸던 바람에
그 작은 가슴 얼마나 졸였을까?

어미도 보이지 않고 깃들일 둥지도 없는데
내리는 비 맨 몸으로 맞아야 했을 저 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?

사람들도 잠들고 세상이 숨죽인 어둠 속에서
호올로 잠 못 들었을 저 새는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?

이 아침! 악몽 같은 밤을 잊은 듯
푸른 하늘을 향해 노래하는 저 새는 알기나 할까?

그 비바람 속에서도
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
밤새워 지켜주신 하나님을
알고나 있을까?
기억이나 할까?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
사탄은
우리의 수고를 비웃고
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
우리가 기도할 때는 떤다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
슬프도다!
부모는
나를 낳았기 때문에
평생 고생만 했다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 광 송 Gloria	Calvary	다 같 이
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 도 자
*찬 송 Hymn	34장	다 같 이
*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d	72(어버이주일)	
*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인 도 자
찬 송 Hymn	304장	다 같 이
기 도 Pray		김교섭 장로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누가복음 15:11-24	인 도 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 십자가성가대
설 교 Sermon	하나님 마음 같은 아버지 마음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305장	다 같 이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응 답 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같 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◈5월 예배위원◈

일자	기 도	헌금위원	안 내
30	정희자	한상순	<본당> 김순자
7	현석호	강동호	정희자
14	김교섭	강보원	
21	김소연	강 욱	<현관> 이재영
28	김순자	강은미	박일영

◈5월의 교회력 ◈

	주 일	예배와 모임
7	어린이주일	월초새벽기도회(1) 남성만의 르네상스(5) 구역예배(12)
14	어버이주일	믿음의어머니기도회(16) 피택자교육(19)
28	이삭줍기주일	수요수도원(기도회)(31)

2006년 신앙생활:하루에 7분기도하기	『교회등록』
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	*3주간 예배,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

주일예배.아동,학생: 낮 12시	수요예배: 7:30 pm	새벽기도회:금 5:55	청년부:토 오후 5시

1.교우소식
<이사> 신미숙 집사 ☎522-0058. 22 U Aratonga Ave. Greenlane
<소천> Arthur Cheng(장은정 성도 남편). 지난 10일(수) 소천.
*입관예배:15일(월) 오후 2시. David's Funeral(400 Dominion Rd.Mt Eden)
*장례식: 17일(수) 오전 11:30분. Albany Cemetary(235 Schnapper Rock Rd)

2.오늘은 『어버이 주일』로 지킵니다
* "어머니,아버지! 부모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면, 그리고 기쁨을 누릴 때에도 지금처럼 그리움도 힘이 되는 부모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"
*청년들이 어제 늦게까지 만들어 오늘 달아드린 카네이션에는 어른 공경하는 마음을 진하게 물들였습니다.
*교우께서 교회 어른되시는 제 1,2남여 선교회원 가정에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다면서 "상어연골"을 봉헌하셨습니다

3.오늘부터 주일낮예배 시간변경 <12시에서 12:30분으로..>

4.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<16일(화) 오후 1시. 교회>
*여성교우들께서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. 여성교우들의 참여바랍니다

5.모임: 1)주차관리부(잔디밭) 2)제3여선교회(1958년~1961년 생.잔디밭)

6.성전건축을 위한 헌금을 시작하였습니다.
*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문 밀고 들어와 마음껏 웃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을 물려주고 싶습니다.
*헌금봉투에 '성전건축헌금' 이라고 밝혀 주십시오.

7.피택자 교육 <19일(금) 저녁 7시 30분. 교회>
*기존 직분자와 피택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8.『내 가족위해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금요새벽기도회』<금요일 새벽 5:55분>
*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! 참 아름답습니다.

◀착한 시인▶ 어버이의 생일

김종상

조선총독부가 있을 때
청계천변 10전 균일 상밥집 문턱엔
거지소녀가 거지장님 어버이를
이끌고 와 서 있었다
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
태연하였다
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
10전 짜리 두 개를 보였다